

부산체육톡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46**
2024. 02

부산체육인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이사장

부산체육 꿈나무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강영서 선수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부산체육독톡'

CONTENTS

Vol. 46
2024. 02

1

부산체육인

건강하고 쾌적한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을 위하여!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이사장



2

부산체육 꿈나무

투지와 열정의 팀워크로 미래를 밝히는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3

부산체육 스타

눈부신 설원 위, 빛나는 인생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강영서 선수



4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건강하고 쾌적한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을 위하여!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이사장



부산환경공단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환경전문공기업’이다.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버리는 하수와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곳으로, ‘저탄소 그린도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환경 분야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부산환경공단은 전국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이 소속되어 있다.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은 2006년 1월 부산광역시체육회로부터 남자팀을 인수해 운영, 이어 2008년 1월에는 여자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세팍타크로팀은 2008년 전국체육대회 남자부 은메달, 여자부 동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2018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남자부, 여자부 ‘동반 우승’으로 국내 최강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지난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여자선수단이 다시 한번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며 부산 세팍타크로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처럼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이 최강 전력을 자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선 부산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겠지요.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감독님과 지역의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 저희 공단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일 이사장은 세팍타크로가 부산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시민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만드는 것이 공단이 추구하는 바라며 세팍타크로를 향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지역 내 세팍타크로 저변 확대와 선수단의 실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팍타크로 종주국인 태국 스포츠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자팀의 경우 정상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남자팀의 경우 올해 새롭게 멤버를 구성해 멋진 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길 응원합니다!”



투지와 열정의 팀워크로 미래를 밝히는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인지중학교 핸드볼부는 2008년 창단해 올해로 16년째가 되었다. 신곡중학교 핸드볼부가 해체된 이후 초등학교 핸드볼부 졸업생들이 진학할 곳이 없어지게 되면서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창단이 있기까지 협회 및 여러 관계자의 고군분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최우석 코치는 선수들의 기량과 장단점을 파악해 최대한 훈련에 집중한다.

“훈련은 사직에 있는 체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늘 체육회관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연습을 위해 매번 일광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오는 선수도 있죠.”

체육회관을 함께 쓰는 낙동고등학교와 만덕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훈련의 성과는 2023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나타났다. 10년 만에 4강에 진출하고, 주니어국가대표 2명을 배출하는 등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선수 한 명 한 명 컨디션을 파악하는 동시에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기에 임할 때는 실시간으로 상대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하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선수들에게 즉각적인 전술 코칭을 전달했습니다.”

핸드볼은 속도감과 더불어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다 해도 경기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인지중학교 선수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선수마다 팀을 위한 희생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합 일주일 전, 한 선수가 훈련하다가 코를 골절당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팀 전술의 가장 큰 핵심이라 4강전 직전까지 수술을 미루면서까지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선수의 희생 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늘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부산의 청소년 핸드볼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인지중학교 핸드볼부. 앞으로 이들이 큰 날개를 펼치며 넓은 핸드볼 코트를 훨훨 나는 날을 꿈꿔 본다.

눈부신 설원 위, 빛나는 인생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강영서 선수



前(전)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이자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소속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강영서 선수. 그는 생후 29개월에 처음 스키를 신었을 만큼 어려서부터 스키를 좋아했다.

“태어난 순간부터 겨울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스키장으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스키를 타러 갈 때마다 그 매력에 푹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고, 그러던 중 그냥 재미로 나가 보았던 부산스키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선수가 된 계기였죠.”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스포츠를 접해보았지만, 어느 것도 대자연 속 설원을 마음껏 달리는 일만큼 재밌지는 않더라는 강 선수는 이후 (당시)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면서 유망주로 주목받기도 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만 16세의 나이로 ‘2014 소치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한 달 전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림픽에는 무사히 출전할 수 있었지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올림픽에 다녀와 수술한 후, 슬럼프 기간이 꽤 길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 덕분에 선수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강 선수는 이후 세계적인 무대에 계속 도전하며 한국 여자 선수 중 알파인스키 월드컵 대회 전 종목에 최초 출전하였다. 작년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4관왕을 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 곧 다가올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준비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비록 국가대표로서는 은퇴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소속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 보려 합니다. 멈추면 돌아올 수 없는 스키선수로서의 삶을 최대한 오래 만끽하기 위해 조금 더 자유롭게 즐겁게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6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다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사상구체육회는 25개 회원 종목 단체(309개 클럽 10,123명)가 활동하고 있다. 체육회 이사 및 임원을 비롯한 종목별 회장들이 역량 있는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체육 동호인 및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사상구는 부산시민체육대회(현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3연패(2016~2018)를 달성, 2021년에는 경기력상(종합우승)을 수상하였다. 이는 탁구, 파크골프, 체조, 배구 등을 비롯

한 전 종목이 합심한 결과다. 또한 씨름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종목별 구청장기대회와 회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선수를 선발 관리하고 선수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상구체육회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제1회 전국 사상 ECO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더불어 부산 시민 걷기대회도 매년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사상구체육회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대포와 삼락생태공원에서 해양레포츠 활동과 청소년 스키교실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체육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사상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2001년부터 23년간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에 매년 1,400천 원의 육성 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앞으로도 사상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등 창의적인 스포츠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체육 환경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필수 안내사항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